

과기연구주간소식



16호
2024. 9. 13.(금)

발행_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발행인_최연택 위원장 홈페이지 www.kupst.org E-mail: mail@kupst.org

낙낙하고 평등한 한가위 보내세요~!

조합원 동지들, 낙낙하고 평등한 한가위 보내세요.

낙낙하고 풍요로움을 누리며 기념하는 날인데
올해 한가위 명절은 어느 때보다 힘들고 팍팍할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환경변화로,
한가위를 체감할 수 없는
혹서의 날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높은 물가에 한 끼 외식,
장바구니 물가 걱정은
이미 일상이 되었습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의료대란에
혹여라도 응급실 신세져야 하는
상황이 일어날까 걱정입니다.

정부는 경기 안정과 민생에는 관심은 없습니다.
노동조합과 공공연구기관들을 대하는 이 나라 정부의 태도는
또 어떠합니까? 이 나라 민중의 삶과 우리 노동자들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한가위의 의미대로 바쁜 한가운데서 가던 길
잠시 쉬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조직 출범 이후 숨 돌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함께 고생하신 동지들 감사합니다.
연휴에는 몸과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평화로운 휴식의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위 명절에도 쉴 수 없는 동지들과 오늘도 투쟁하고 있는 많은
동지들을 떠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조합원 동지들 가정에 평안과
화목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24년 9월 13일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최연택 위원장 드림

TP본부 국회의원실 면담

김정호, 이재관, 서왕진 등 보좌관 미팅을 통해 국정감사, 법개정 논의



<김태훈 테크노파크본부 부분부장, 장철민 의원실 황두영 보좌관 면담>

우리 노조 테크노파크본부(이하 TP본부)는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국회를 방문하여 전용기, 김기표, 서왕진, 이재관, 김정호, 장철민 의원실을 방문하여 테크노파크 현안을 설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이재관 의원실 김거성 보좌관이 중기부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TIPA) 자료 요청을 즉시 하기로 했으며, 추후 자료를 바탕으로 테크노파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방법을 우리 노조와 지속적 논의하기로 했다.

김정호 의원실 이진우 보좌관, 김정은 비서관과의 면담에서는 지역중소기업 육성과 혁신을 위한 지원 업무 전담기관 지정 법률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개정 작업을 국정감사 이후 진행하기로 했으며, 법 개정 작업 과정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더 내고 덜 받으라고? 노후파탄! 세대간 분열 조장!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악 반대한다!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납입기간: 59세 -> 64세
- 보험료율: 9% -> 13%

50대 연간 1%p, 40대 0.5%p, 30대 0.33%p, 20대 0.25%p씩 각각 인상

- 명목소득대체율 42% 유지
- 자동 조정장치 도입

위와 같은 정부의 국민연금 개정 방향과 내용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현행법상 정년이 60세이고 실제 평균 정년 퇴직은 이보다 빠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년 연장 없이 연금 수령 시점만 65세로 연기되면서 소득공백 발생으로 인해 베이비붐 세대의 가계 위기가 눈앞에 선다.

둘째, 정부는 '더 내고 더 받는다'는 국민적 합의에 바탕한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

국회 국민연금 개혁특위는 보험료율을 13% 인상하되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정부는 국회 특위의 결론을 무시했다.

셋째, 자동 조정장치 도입은 사실상 연금액 삭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자동 조정장치를 도입하고 있는 독일 등 국가는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자동조정 장치가 실행되어도 연금 소득이 일정 수준 유지된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민 평균 연금 수령액이 현재도 적은데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수령 총액은 20% 더 삭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지 않아도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아 다수 국민의 노년 생활 안정이 위협받는데 현 정부는 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려 한다.

넷째, 국고 투입과 수익율 제고 방안 등 연금 재원의 안정화 방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미래세대에게 더 많은 부담을 부과하지 않으면서 연금 고갈이 되지 않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현 정부는 이를 무시한다.

우리 노동조합은 시민공론화위원회가 결정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대안을 무시한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악안에 반대한다. 이제 국회가 나서 국민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세대간 형평을 최대한 이룰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4. 9. 11.

행사와 집회



카이스트유니온지부 임시총회 및 설명회(9.12.)



제주테크노파크지부 선전전

주요 언론보도

[테크노파크 경영진 비위 행위 논란에 노-사 갈등](#) - 제주MBC

[제주테크노파크 노사 갈등 고조](#) - 세계일보

[과기한림원 임원들, 관용차로 골프장 가고 세금으로 해외관광](#) - 경향신문

주요 일정

- 9/20(금) 10:00 총북tp 임단협 실무교섭 3차
- 9/23(월) 11:00 방위사업노동자위원회 국회 기자회견
- 9/24(화) 14:00 2024-4차 중앙위원회
- 9/26(목) 12:00 활동가기초과정 1강
- 14:00 테크노파크본부 9월 월례회의(~27일)